

2026.06.14.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재앙의 순환을 응답의 순환으로
본문: 사사기 2:8-23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지난주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결단과 다짐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접한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함께 살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언약을 후대에게 잘 전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실패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아 그 속에 살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이미 경고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사사를 통해 잠시 회복도 하지만 또다시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어 재앙이 계속되게 되었다. 재앙, 회개, 구원, 재앙이 350년간 계속 순환되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의 특징은 재앙의 반복되는 시대였다. 하나님은 시대적이나 개인의 삶에 개인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하신다. 재앙의 순환이 응답의 순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본론>

1.하나님 백성에게 온 재앙의 반복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성취와 정복

의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재앙이 반복되는 사사시대로 들어왔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 재앙이 주변의 환경으로 온 것일까? 그 남겨둔 족속이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재앙을 주시려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다. [삿2:22-23] 시험을 통해 응답 주시려고 남겨두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긴장하도록 하신 것이다. 재앙이 온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기에 재앙이 온 것이다.[삿2:14-15]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다 쫓아내지 못한 지방 족속에게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이켜 부르짖으면 당장 사사를 세워 건져 내셨다.[삿2:18] 그러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버린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삿2:19] 이렇게 재앙의 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2.재앙의 순환을 끊게 만드는 언약 전달

▶재앙의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왔고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기에 다시 말씀을 잡고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재앙을 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사사들이 왔을 때는 되었다가 사사들이 죽고 난 후에는 또 실패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잠26:11]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 죄로 인해 온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탄의 권세에 건지신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 때 우리 삶에 순환하는 재앙을 끊게 된다. 완전한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전달하는 것이 가정, 시대의 재앙의 순환을 끊는 방법이다. 후대를 살리는 길, 오직 그리스도이다.

3.남겨둔 족속을 통해 재앙이 아닌 오히려 응답받는 자

▶하나님 백성은 환경 때문에 재앙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신 응답 속에서 여러 족속을 남겨두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방법이다. 다 이뤘지만 아직아닌 긴장을 통해 언약 속에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깨어있어야 한다. 이들의 환경은 재앙의 화근이 아니다.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아 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천국은 주님의 재림과 천국 갈 때에 완전해진다. 그러나 아직은 세상에 살기에 아직은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다. [삿1:21] 베나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장악하고 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다 보니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고 응답받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 다윗이다. 삼하5장이다. 이후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응답 속에 정복 한다. 삼하24장 다윗이 왕이 되었을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다. 그 범죄로 온 땅에 질병이 올 때 다윗의 부르짖음으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재앙을 그치는 제사를 지내게 하신다. 그 제사 지낸 곳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게 된다. 깨어있으면 축복 받는다. 아직 성도들에게 아직 쫓아내지 못한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것이다. 긴장 속에 깨어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우리 삶에 문제와 현실이 있지만 이것은 낙심과 재앙의 근원으로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 응답받게 하신다. 야곱의 가문을 기근의 재앙에서 건져낸 자가 바로 노예가 팔려 간 요셉이다. 결과적으로 문제 만난 요셉이 응답받은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가지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깨어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눅18:1] 안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문제를 주신 이유를 찾고 깨어 기도 해야 한다. 문제를 통해 재앙의 순환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한다.